

## 글로벌 선교의 현실에 개입하기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경청

Global Listening Team

### 서론

로잔운동의 지도부는 2024년 9월 서울에서 열릴 제4차 로잔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여는 일을 주도했다.

첫번째 공청회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강했던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개의 권역과 23개의 이슈네트웍 그리고 젊은 세대 지도자들 모임 (TLGen)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총 36개 그룹 모임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공청회의 분석 보고서는 로잔운동의 Global Listening Team에 의해 준비되어 2021년 9월에 발표되었다.

두번째 공청회는 보다 깊은 차원의 경청과 분석을 위해 Global Listening Team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총 30회의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의 8개 권역을 대표하는 12개 국가들에서 시행되었다. 이들 권역들과 국가들은 영어 알파벳 순으로 동아시아 (일본과 한국), 유럽 (스페인과 영국), 불어권 아프리카 (카메룬), 중동 (이스라엘과 레바논), 북미 (미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남아시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이다.

인터뷰를 위한 매개 언어는 그 나라의 공용어였는데, 이로 인해 보다 깊은 차원의 토론이 촉진되었다.

아래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쓰인 질문들의 세트이다:

1). 대위임령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극, 혹은 아직 다 이루지 못하고 남아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서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그 간극 혹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2). 대위임령의 성취를 촉진할 수 있는 돌파구나 혁신의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사역적인 돌파구나 혁신 사례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어떻게 촉진되고 추진되는가? 사역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돌파구와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대위임령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협업이 더 필요한가? 그 분야에서

의 협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협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어떻게 전략적으로 동원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4).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인가?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선교 연구를 어떻게 더 촉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는 연구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5). 이 공청회 과정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 팀은 미래에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경청의 대상을 어떻게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 설문조사를 통해 다룰 특정한 질문이나 이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번째 공청회는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30개의 보고서를 내었는데, 그 전체 단어 수는 278,753개에 달하였다.

(도표 1. 글로벌 포커스그룹의 단어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에 쓰인 방법론은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구성주의 방식을 따랐고, 데이터 분석의 첫번째 단계인 행별 코딩 (line-by-line coding)과 두번째 단계인 집중코딩 (focused coding)과 이에 연결된 주제들의 비교분석의 과정에서는 NVivo for Mac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다. 이후 세번째요 마지막 단계인 이론적 코딩 (theoretical coding)과 통합의 과정이 결론에 이르는 이론적 통합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글로벌 지배적 주제들 (Global Dominant Themes)

데이터를 수집한 30개 그룹 중 10개 이상의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대두된 주제는 8개였다. 글로벌차원에서 이렇게 지배적으로 등장한 주제들은 '사역의 돌파구 사례', '제자도의 중요성', '훈련의 필요성', '젊은이들에게 귀 기울이기', '상황화의 필요',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 '미전도종족 복음화', '대위임령의 의미 분명히 이해하기' 등이다. 테이블 1에는 지배적 주제들의 집단의 숫자, 나라의 숫자, 언급된 회수가 표기되었다.

(테이블 1. 글로벌 지배적 주제들)

주제	포커스그룹	국가	언급
사역의 돌파구 사례	21	10	68
제자도의 중요성	18	11	66
훈련의 필요	15	10	31
젊은이에게 경청하기	15	10	20
상황화의 필요	13	9	35
교회가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	13	8	22
미전도종족 복음화	12	6	25
대위임령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	11	6	15

### 사역의 돌파구 사례

사역에 있어서 돌파구 사례라는 주제는 포커스그룹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이다. 이 주제는 7개 권역의 10개 국가의 21 포커스그룹에서 총 68회에 걸쳐 언급한 것이다. ... 이 주제의 주요 내용은 사역 환경의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적인 돌파구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스페인에서 한 그룹은 글로벌화의 물결 가운데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돌파구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Langham Partnership이 주최한 설교자를 위한 설교 워킹숍의 영향에 대해 말했고, 또한 이에 바탕을 두고 지도자들이 함께 일해서 협업과 돌파구 마련이 가능해진 것을 설명했다. 다른 스페인 그룹에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공적인 파드캐스트 사례와 구내 식당이나 피자집 등 만나기 좋은 곳에서 전도적인 대화를 통해 결실을 본 사례들을 소개했다.

카메룬의 포커스그룹에서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해서 전도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최근의 통신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전도하는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레바논의 포커스그룹에서는 참가자들이 교회들이 이전보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을 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더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포커스그룹에서는 미전도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디지털 자료들이 제자삼는 사역과 성경 공부에 특별히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 제자도의 중요성

제자도의 중요성은 글로벌하게 강조된 또다른 지배적 주제이다. 8개 권역의 11개 국가의 18개 포커스그룹에서 이 주제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었는데, 전체 언급회수는 66회에 달했다.

영국의 포커스그룹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일을 잘 할 필요를 강조했다. 이 그룹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잘 받지 못했으며, 실제적인 삶의 모범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민감하게 전달하도록 도울 필요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레바논 참가자들은 특별히 무슬림 배경 신자들 (Muslim Background Believers)을 제자화할 필요에 관심을 환기시켰다.

북미의 참가자들 또한 제자도의 이슈에 대해 주요하게 토의했다.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제자도의 깊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이슈들의 상당수는 북미의 상황에서 다루어졌지만, 그들 역시 미전도종족들을 위한 제자훈련을 중요한 필요로 인식했다. 선교적 관점에서 젊은이들을 제자화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로 여겨졌다.

아르헨티나 포커스그룹은 그리스도의 주되심 (lordship)이 교회들의 가르침에서 빠져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보통 신자들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대체적인 무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 약한 개념과 관련이 있다.

## 훈련의 필요

훈련의 필요는 8개 권역의 10개국에서 열린 15개 포커스그룹에서 총 31회에 걸쳐 언급된 글로벌하게 강조된 또다른 주제이다. 모든 대륙에서 이 주제는 복음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에서 양질의 신학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신학 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수준이 문제가 된 몇몇 신학 기관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파키스탄 포커스그룹은 교회들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해야 할 필요를 다루었다.

지도자 훈련의 필요는 아르헨티나 포커스그룹에서 제기되었다.

훈련의 필요는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기도 했다. 목회 사역, 도시 사역, 교차문화적 사역, 제자도를 비롯한 여러 사역에서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요청되었다.

비슷한 이슈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포커스그룹에서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MBB들의 구별되는 점들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제자도와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상황화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한국의 토론에서는 교회 사역자들을 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일본의 포커스그룹들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해서 선교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 젊은이들에게 귀 기울이기

추가적인 경청을 위해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제안되었는데, 젊은이들 (15개 포커스그룹에서 강조됨), 비신자들 (7개 그룹), 소외된 사람들 (7개 그룹), 여성 (5개 그룹), 현장에

있는 사람들 (5개 그룹), 이주자들과 디아스포라들 (5개 그룹), 보통 사람들 (4개 그룹), 교회를 떠난 사람들 (3개 그룹), 새신자들 (3개 그룹), 해외 선교사들 (3개 그룹), 공동체 (2개 그룹), 전문가들 (2개 그룹), 전문인들 (2개 그룹), 학문적인 지도자들 (2개 그룹) 등이 그들이다.

젊은이들에게 귀 기울이기는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그것은 7개 권역의 11개 국가의 15개 포커스그룹에서 20번에 걸쳐 언급할 정도로 글로벌하게 지배적인 주제로 떠올랐다.

말레이시아 그룹은 지도자들이 내부서클을 벗어나 10대와 같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지적했다. 싱가포르 그룹은 젊은이들 혹은 다음 세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조명하기도 했다.

파키스탄 그룹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젊은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포커스그룹은 교회와 단체의 사역에 있어서 Z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에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미국의 참가자들은 젊은이들을 기독교 단체 안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한국의 포커스그룹에서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선교사 지망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현되었다.

### 상황화의 필요

상황화의 필요는 6권역의 9개 국가의 13개 포커스그룹에서 총 35회에 걸쳐 언급된 또다른 글로벌한 차원의 지배적인 주제이다.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강조점 중의 하나는 기독교 사역의 적실성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었다. 포커스그룹의 참가자들 다수는 상황화의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관심을 표했다.

다수세계 (The Majority World)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는 상황화 이슈의 핵심에는 서구 전통, 유산, 자원에 대한 의존심의 문제가 있다. 이 지도자들은 상황화를 진지하게 추구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존심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서구 지도자들은 다수세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적실성 이슈에 대해 헌신되어 있지만,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른 안건을 가지고 있었다. 서구 지도자들은 다수세계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상황에서의 문화 적 다양성을 전제로 했다. 서구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상황화 이슈를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안건으로 여기기보다 신학적이거나 선교학적인 과제로 여기고 접근하는 듯이 보였 다.

스페인 포커스그룹의 참가자들은 극도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다 가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미디어가 이전 세대와 다른 것에 대해 다루면서 이것이 다른 상황화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상황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서구인들과 다수세계인들이 관점이 다른 것은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배경을 가진 서구 국가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서구와 다수세계 중간의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

포커스그룹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보다 더 활발하게 개입할 필요를 강조했다. 6개 권역의 8개 국가의 13개 포커스그룹에서 이에 대해 22회에 걸쳐 언급했다.

한 한국인 목회자는 교회들이 자체적인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복음의 빛을 외부에 발

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교회들이 외부적인 현실에 개입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스페인 참가자들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일에서 소외되거나 떨어진 현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영국 참가자들 역시 외부 현실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들이 대위임령에 진정으로 충실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참가자들 또한 교회들이 사회에서 고립된 문제를 조명했다. 팔레스틴과 같은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영향력을 별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레바논 상황에서 교회들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보다 더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르헨티나 참가자들 또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현실을 보다 더 긴밀하게 다루어야 함을 주장했다.

### 미전도 종족 복음화

글로벌 차원에서 또다른 지배적인 주제 한 가지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인데, 이 전략적인 비전은 원래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서 랄프 D. 윈터에 의해 명쾌하게 제시된 것이다. 이 전략은 자생적이고 전도의 활기가 있는 교회가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는 교회개혁운동과 같은 외부의 선교적 노력이 필요한 숨겨진 종족 혹은 미전도 종족들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6개 권역의 6개 나라들의 12개 포커스그룹이 이 중요한 간극을 지적하면서 25번에 걸쳐 언급했다.



이 비전은 처음에 미국에서 제시되어서 북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북미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말하는 바에 비추어 이 주제를 분석할 때 원래의 전략의 가치와 적실성을 확인하게 된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지전을 완수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간극으로 남아있다.

한 참가자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도시기반의 접근법의 전략적인 타당성에 대해 말했는데, 미전도 인구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변화된 역동성을 고려할 때 이는 앞선 전략적인 제안이다.

북미의 포커스그룹에서 나온 또다른 중요한 제안 한가지는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개념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개척선교학의 개념과 통합될 때 전략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교회들은 지난 30여년간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려는 전략적인 비전에 대해 열정적인 헌신을 계속해왔다. 한국 선교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열정적이지만, 이 강조점과 열정이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었다는 관측이 있기도 하다.

어떤 나라들은 미전도 종족의 이슈를 시급한 선교적 과제로 다루는데, 그것은 그러한 종족들이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 카메룬 지도자는 교회들이 이 선교적 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필요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포커스그룹은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려는 이 엄청난 필요에 비해 할당된 자원이 너무 부족하기에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자원들을 적절히 할당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 대위임령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기

대위임령의 의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설과 설명이 필요하다. 이 주제는 6권역의 6 나라의 11개 포커스그룹에서 15번이나 반복되었. 이 주제의 주안점은 짧지만 심오하게 싱가포르인들의 대화에 잘 표현되었다: “교회들이 사용자친화적인 도구들에 기초한 우리 신앙의 대중화된 패키지

나 축소주의적인 버전을 영구화하기보다 역사적 기독교를 회복하도록 대위임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토론에서는 제자도의 차원이 대위임령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카메룬의 포커스그룹도 같은 맥락에서 선교 세미나 등을 운영해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선교적 인식을 고양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영국의 포커스그룹에서는 선교가 성경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현재 세계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분명한 선언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북미의 포커스그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에 대해 적절히 가르칠 그 교육적 필요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선교를 단지 선교여행으로 축소해서 이해하지 않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포커스그룹에서는 대위임령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서구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황화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땅끝’의 개념은 선교지의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대위임령을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슈는 글로벌 교회의 실재적인 필요이다. 글로벌 교회와 그 글로벌 선교에 대한 다중심적 선교적 전망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면서 이 토론을 계속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 권역별 지배적 주제들

제2차 공청회에서는 8개 권역을 대표하는 12개 나라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 권역들은 동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이다. 그 대화들의 지배적인 주제들은 아래에 지역별로 분석될 것이다.

## 동아시아

이 권역에서는 총 11개의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 일본에서 4개, 한국에서 7개가 진행되었다.

### 도표 2. 동아시아 포커스그룹의 단어 클라우드

이 권역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실천에 대해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다.

정보의 부족은 이 권역의 포커스그룹 참가자들에 의해 중요한 이슈로 지적되었다.

지역 공동체에 개입할 필요는 4개의 포커스그룹에서 반복될 만큼 중요한 간극으로 지적되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4개의 포커스그룹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회개와 화해의 실천이 또한 이 권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인상적인 사역의 돌파구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도자들이 사역의 고정관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초교파적으로 다른 교회와 지도자들과 파트너십과 협업을 모색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나눔에 있어서 그들은 수치적인 결과보다 진정한 선교적 정신과 헌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 유럽

### 도표 3. 유럽 포커스그룹의 단어 클라우드

글로벌화는 한편으로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거대한 기회이기도 하다. 기술적인 혁신은 앞선 기술들이 현명하게 또한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새로운 차원의 기회들을 가져온다. 많은 혁신적인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이 많은 사역 상황에서 실행되고 있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이전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비용도 전통적인 형태보다 더 적게 드는 상황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협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중심적인 경향 (task-orientation)을 극복하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중심적인 경향의 한계는 유럽 지도자들의 대화에 드러난 관계에 대한 강조점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연구에 관한 한, 유럽 지도자들의 대화는 연구자들이 유럽의 교회들과 기독교 사역들이 직면한 다양한 선교적 이슈들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할 필요를 지적했다. 그러한 연구를 할 연구자의 자질 중의 한 가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또하나의 다른 자질은 엄청난 연구의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스페인의 포커스그룹에서 공히 젊은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주제는 글로벌한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 상황에서도 유효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의 대화는 깊은 차원에서 통찰력있는 관찰과 제안을 했다. 많은 제안들이 권역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지만, 유럽 권역에만 국한되는 내용들은 아니었다. 많은 발언 내용들이 글로벌한 시사점을 가진 핵심적인 복음주의적 본질을 다루었다. 이 권역에서의 풍부한 복음주의적 유산은 문화를 넘어선 상호간의 배움의 차원 취지에서 글로벌 교회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

### 불어권 아프리카

#### 도표 4. 불어권 아프리카 포커스그룹 단어 클라우드

카메룬 참가자들은 제자도 훈련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간극으로 보았다. 이 주제는 다른 주제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토론한 주제였다.

비록 제자도가 평생에 걸친 배움과 실천을 요하지만, 제자도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의 체계 혹은 골격들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조직화해야 한다.

불어권 아프리카 포커스그룹은 또한 사회의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총체적인 관점의 결여에 대해서 이 권역의 토론에서 다루어졌다.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것은 이 권역의 토론에서 중요한 간극으로 여겨졌다.

이주는 우리 시대에 중요한 역학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미전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목할만한 움직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카메룬 그룹은 미래의 연구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

#### 중동

#### 도표 5. 중동 포커스그룹의 단어 클라우드

이 권역의 세 그룹이 모두에서 반복된 가장 많이 조명된 주제 중 하나는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에 대한 것이다. 이 주제는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문제에 대

한 지적이다.

훈련의 필요에 대해서는 이 권역의 토론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루어졌는데, 두 그룹에서 이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한 이스라엘인 그룹은 문화적인 선입견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자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자료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레바논 상황에서 훈련의 필요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MBB들을 훈련할 필요에 대한 것이었다.

상황화의 필요성은 두 포커스그룹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는 두 그룹에 의해서 기독교 사역의 중요한 간극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스라엘 상황에서, 재정은 거대한 간극으로 여겨졌다. 이 문제는 사역을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필요이다. 교회들은 체제와 정책입안을 통해서 그러한 필요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세 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간극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돌파구 마련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어떤 사역적인 돌파구 사례들은 이 권역에서 인종적인 장벽들을 넘는 협업의 노력과 함께 일어났다.

이 권역에서 포커스그룹의 참가자들은 미래의 연구 과제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다.

공동체의 필요는 공동체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는 가운데 충족될 필요가 있다.

## 북아메리카

### 도표 6. 북아메리카 포커스그룹 단어 클라우드

미국 참가자들은 그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제자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참가자들은 대위임령의 전체적인 개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에 깊이가 결여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북미의 세 포커스그룹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제자도와 사역 훈련에서의 기본적인 필요는 사람들이 대위임령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포커스그룹의 미국 참가자들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복음화가 점점 더 약화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많은 돌파구 사례들이 글로벌 복음주의 서클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역의 혁신과 함께 일어났다. 어떤 사례들은 같은 지역의 다수의 교회들과 단체들이 관련된 가운데 협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사례들이었다.

앞의 내용과 관련되어, 참가자들은 북미의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 연합되었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북미의 참가자들은 로잔운동이 협업의 플랫폼이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연구와 관련해서는 북미의 지도자들은 연구의 접근법으로 현장기반의 경험적 연구를 중시하였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남아메리카

### 도표 7. 남미 포커스그룹의 단어 클라우드

제자도의 중요성이 이 그룹에서 강조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언급되었다. 제자도의 주요 이슈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또다른 중요한 필요는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더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중복의 문제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이 권역의 토론에서도 Covid-19 기간의 디지털 혁신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디지털 혁명은 공간과 시간의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사역들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도자들 사이에는 교단의 장벽들이 이전보다 덜 문제가 되며, 교회들이 더 연합하고 협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의 이슈에 관한 한, 일반적인 의견은 연구를 위한 협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의 사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연합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제안에 따르면, 사역의 대상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전략적인 일이라고 여겨졌다. 설문조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미 지도자들의 권역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사역의 간극과 연구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시간을 썼다.

## 남아시아

### 도표 8. 남아시아 포커스그룹의 단어 클라우드

파키스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를 지적했다. 그들의 경계 너머를 보면서 교회들은 공동체들, 특히 젊은 세대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그들의 토론에서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고통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많은 신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실망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교회들과 단체들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용기를 잃은 사역자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이 사역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화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상황화의 이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 지도자들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현대의 기술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남아시아 지도자들은 선교를 위해 목회자들을 동원할 필요를 지적했다는데, 이것은 이 권역에서 현실적인 이슈가 된다.

사역의 돌파구가 마련된 사례들이 토론 그룹에서 다루어졌다. 이 대화에서 나온 한가지 주목할만한 메시지는 파키스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사이에 거대한 부흥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권역의 상황에서 선교 연구는 제한없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중요성이 토론 참가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그들은 연구의 과정에서 사역의 실천가들이 효과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들은 또한 효과적인 전도, 제자도, 설교, 그리고 상황화의 주제에 대한 탄탄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한 남아시아 포커스그룹은 고통과 핍박의 신학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지도자들, 목회자들, 젊은이들, 신입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핍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동남아시아

### 도표 9. 동남아 포커스그룹 단어 클라우드

동남아 포커스그룹들은 제자도의 이슈에 대해 다루었는데, 말레이시아 그룹은 더 자세하게 이에 대해 토론했다. 그 요지는 제자도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참가자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필요성은 사역에 있어서 한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마켓플레이스의 중요성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간극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싱가포르 그룹도 미전도 종족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들을 활용하는 이슈를 다루었다.

싱가포르 그룹은 선교를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해 토론했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장기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고민했다. 선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교차문화적 사역을 위해 더 많은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그룹은 사역에 있어서 혁신적인 돌파구 사례들을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그룹은 디지털 선교 여행이 Covid-19 기간 동안 좋은 대안이 되었다고 보았으며, 싱가포르 그룹은 성경 공부와 제자도 프로그램을 위한 디지털 자료들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Covid-19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싱가포르 그룹은 특별히 사업과 선교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협업의 노력은 교회들이나 단체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연구에 관한 한, 참가자들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기보다 사역에 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그룹에서는 상황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제안이 있었다.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대해 강조했다.

이 권역에서 제기된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은 모델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전

형적인 프로파일과 같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해서 “포용적인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또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사라왁에서 현재 경험하듯이 기도를 통해 부흥과 재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결론

### 글로벌 선교의 현실에 개입하기

- 1). 사역에 있어서 돌파구가 마련된 사례들과 관련하여 로잔운동의 지역별 네트워크는 그 돌파구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배우기 위해 권역별 포럼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2). 제자도의 중요성은 2024년 서울대회에서 하나의 주요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 3). 훈련의 필요성은 로잔운동의 권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권역별 포럼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공청회 프로젝트는 로잔운동의 권역별 및 국가별 네트워크에서 젊은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 5). 상황화와 관련해서는 로잔운동의 권역별 네트워크별로 연구 프로젝트와 포럼을 열어서 그 결과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6). 교회들이 외부 현실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2024년 서울 대회의 한 주요 주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7).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려는 중요한 필요는 남은 과업을 재정의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차원의 포럼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8). 대위임령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자 하는 중요한 필요는 그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 권역별 선교의 현실에 개입하기

1). 로잔운동의 각 권역별 네트워크는 일련의 포럼을 열어서 사역적 돌파구가 마련된 사례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2). 로잔운동의 각 권역별 네트워크는 전략회의를 열어서 사역의 다른 주체들을 초청한 가운데 그들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로잔운동이 각 권역별 네트워크는 다양한 차원에서 공청회 프로그램을 개최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로잔운동의 각 권역별 네트워크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역의 권역별 간극에 대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5). 아래는 연구 프로젝트와 포럼을 통해서 다룰만한 사역의 중요한 간극들의 리스트이다:

선교 연구는 우선적으로 열매 맺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장 기반의 경험적 연구의 필요는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위에서 제기한 이슈들, 즉 사역의 실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른 몸들은 상호모순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많은 경우에 그 다름은 표면적인 차원의 것이었고, 깊은 차원의 공통점들은 경청의 과정이 나선형으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점점 더 명백해졌다. 그 공통

점들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복음주의적 신앙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현상은 글로벌화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에 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4-6, 개역개정판)*